DOI : http://dx.doi.org/10.22274/KORALIT.2023.71.003

한국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책방형(冊房型) 인물의 존재 양상과 특징* **

송미경***

차례

1. 머리말
2. 조선 시대 기록을 통해 본 '책방(冊房)'에 관한 인식
3. 한국 고전 서사문학 속 '책방(冊房)'의 형상과 유형
4. 맺음말

<논문개요>

한국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에서도 탁월한 구체성과 현실감을 토대로 전형화의 차원에 이른 보조 인물 또는 주변 인물을 찾아볼 수 있다. 방자형 인물, 뺑덕어미형 인물, 사령형 인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책방형 인물'도 이러한 부류의 인물형에 속한다.

'책방형 인물'의 '책방(冊房)'은 공식 관제(官制)에는 없는 직책으로, 고을 원이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책객(冊客), 책실(冊室)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조선 시대 아전은 중앙 각사의 하급 관리인 '경아전(京衙前)'과 지방 관서의 하급 관리인 '외아전(外衙前)'으로 나뉘었고, 외아전은 다시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로 구분되었다. 해당 지방 출신으로서 대대로 아전 직을 수행해온 이들을 향리, 다른 지방에서 와 임시로 아전 직을 맡은 이들을 가리라고 했는데, 지방관을 따라 내려와 문서 일이나 회계 일을 보면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가리, 그가 바로 책방이다.

인물의 전형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책방이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조직상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채 수령의 사적 참모로서 미묘한 처

* 이 연구는 한세예스 24 문화재단의 202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본 논문은 2023년 8월 11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에서 열린 2023년 한국구비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신호림 선생님, 당시 유익한 논평과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조교수

지에 놓인 존재'였다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가 목낭청, 조 낭청, 이 낭청 등을 두루 포괄하는 '책방형 인물'의 전형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책방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수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전 서사문학 안에서의 형상도 수령과의 관계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철저한 상하 관계에 따라 수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책방형 인물로, 그 종속된 처지에서 비롯되는 언행은 작품 안에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책방형 인물로, 그는 탐관오리로서의 수령과 함께 작품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셋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첫째 유형과 비교해 종속의 정도가 덜한 책방형 인물로, 작품 안에서 수령을 희화화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넷째, 수령과 별다른 관련 없이 그 자신의 개성 또는 한미한 처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책방형 인물이다.

핵심어: 책방, 책객, 춘향전, 까치전, 장연 꼭두각시놀음, 목낭청, 구진, 박문수

1. 머리말

'인물'(人物, character)은 서사문학의 주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등장인물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사건과 이야기는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작중 인물은 역할 또는 비중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심인물, 보조 인물, 주변 인물 등으로 분류되며, 작품의 기본 얼개는 중심인물 위주로 구축된다. 따라서 서사문학의 특정 갈래나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중 인물 연구는 대개 중심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범속한 현실 세계가 그러하듯, 어떤 작중 세계는 중심인물 또는 중심인물 사이에 전개되는 사건과 이야기만으로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때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보조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형상, 그들이 빚어내는 삶의 양상에 부여된 구체성과 현실감이 인간-사회의 얽힘에 관한 경험적 인식의 밀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조

인물이나 주변 인물에 주어지는 역할은 '단순한 소도구적 단역'을 넘어선다.[1)]

한국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에서도 탁월한 구체성과 현실감을 토대로 전형화의 차원에 이른 보조 인물 또는 주변 인물을 찾아볼 수 있다. 방자형 인물[2)], 뺑덕어미형 인물[3)], 사령형 인물[4)]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

1) 김흥규는 판소리 문학이 작품마다 등장하는 서민층 군소(群小) 인물을 단순한 소도구적(小道具的) 단역(端役) 정도로만 처리하지 않고, 그들 하나하나에 놀랄 만한 구체성과 현실감을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얽힘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밀도를 보여준다고 논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책방형 인물'에 속하는 목낭청도 "군노사령, 월매, 농부(이상 춘향전), 뺑덕어멈(심청전), 신세타령하는 군사들(적벽가), 그리고 초라니패·풍각쟁이패 등 떠돌이 놀이패들(흥부전, 변강쇠가)"과 함께 이 선행연구에서 거론되었다. 다만 필자는 서민층 군소 인물을 형상화하는 이러한 방식이 판소리 문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됨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판소리 문학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대상 자료의 범주를 확장하였다. 김흥규.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의 世界像」, 『민족문화연구』 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14쪽 참조.

2) 방자형 인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한숙, 「性格의 類型-房子를 中心으로」, 『韓國文學의 周邊』,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장덕순, 「작중 인물을 통하여 본 춘향전」,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3; 김병국, 「문학적 관습에서 본 〈춘향전〉의 인물고」, 『고전문학연구』 별집 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5(한국고소설연구회 편,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아세아문화사, 1991, 234-269쪽에 재수록); 권두환·서종문, 「房子型 人物考 - 판소리系 小說을 中心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회,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일조각, 1978, 3-36쪽; 김현룡, 「古小說의 '房子' 素材」,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76-180쪽; 김흥규, 「房子와 말뚝이 : 두 典型의 比較」,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885-895쪽; 곽정식, 「작중 인물을 통해 본 「裵裨將傳」의 兩面性 : 「방자」와 「사또」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7, 한국어문교육학회, 1984, 97-117쪽; 박영철, 「房子의 民衆意識과 限界 : 烈女春香守節歌 裵裨將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15,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134-157쪽; 허춘, 「古小說의 人物 硏究 : 仲裁者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148쪽; 박종섭, 「「春香傳」 房子의 性格 硏究 : 「烈女春香守節歌」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122쪽; 곽정식, 「「春香傳」 改作에 따른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樣相」, 『한국문학논총』 11, 한국문학회, 1990, 55-180쪽; 정출헌,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 이고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89-127쪽.

3) 뺑덕어미형 인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하영, 「沈淸傳에 나타난 惡人像 : 뺑덕어미論」,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쪽; 유영대, 「〈심청전〉의 여성 형상 : 곽씨부인과 뺑덕어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03-122쪽; 하경숙, 「여성 악인(惡人)의 형상화와 특질 — 뺑덕어미 인물형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47-73쪽.

4) 사령형 인물에 관한 논의는 이후 그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차사형 인물에 관한 논의로 확

본고에서 주목하는 '책방형 인물'도 이러한 부류의 인물형에 속한다.

'책방형 인물'의 '책방(冊房)'은 공식 관제(官制)에는 없는 직책으로, 고을 원이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책객(冊客), 책실(冊室)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인물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에 이처럼 직책명이 포함되는 것은 '방자형 인물'이나 '사령형 인물'에서도 볼 수 있는 용례이다.5)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책방이라는 직책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선 시대 아전은 중앙 각사의 하급 관리인 '경아전(京衙前)'과 지방 관서의 하급 관리인 '외아전(外衙前)'으로 나뉘었고, 외아전은 다시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로 구분되었다. 해당 지방 출신으로서 대대로 아전 직을 수행해온 이들을 향리, 다른 지방에서 와 임시로 아전 직을 맡은 이들을 가리라고 했는데, 가리는 지방관이 직접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지방관을 따라 내려와 문서 일이나 회계 일을 보면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가리, 그가 바로 책방이다.6)

서사문학의 작중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을 흉내 내어 만들어

장되었다. 송미경, 「사령형(使令型)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309-350쪽; 권태효, 「무속신화에 나타난 죽음 인도신, 저승차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 『일본학연구』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125-154쪽; 정제호, 「서사무가에 나타난 차사형 인물의 콘텐츠 활용 양상과 스토리텔링 전략」,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2017, 409-437쪽.

5) 방자형 인물의 방자(房子)는 '조선 시대에, 지방의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사령형 인물의 사령(使令)은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을 지칭하는 직책명이다. 이상의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방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B%B0%A9%EC%9E%90, 2023. 8. 1. 접속;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령〉,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2%AC%EB%A0%B9, 2023. 8. 1. 접속.

6) '책방'의 직책 및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책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B1%85%EB%B0%A9, 2023. 8. 1. 접속; 정약용, 「목민심서 부임(赴任) 6조」, 『목민심서』,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1288A_0020_030_0020, 2023. 8. 1. 접속; 박영규, 『조선관청기행』, 김영사, 2018, 318쪽.

진다. 작가는 현실과 그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게 변형한다.7) 과거 전통사회의 현실에서 지방관과 지극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보좌하는 것이 책방의 임무였기에, 지방관이 일정한 비중을 지니고 작품에 등장하는 경우 책방이 그 주변 인물로 함께 나오는 것은 서사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가 된다.

> 이 도령의 아버지 李 府使가 아들 자랑을 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상전의 비위만을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趙(穆)郞廳은 이 대목의 희극적 전개에 一助하는 조역이자, 중세 말기 사회의 혼탁한 현실에서 官長의 권력에 기생해야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하급 관리의 우스꽝스럽고도 서글픈 생존 방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풍자적 전형의 의미를 가진다.8)

김흥규가 "도식화된 기능적 조역의 정도를 넘어 비록 단편적일 망정 각기의 개성과 현실적 부피를 지닌 인물"9)의 예로 거론하며 위와 같이 분석한 〈이고본 춘향전〉 속 '조낭청/목낭청(趙郎廳/穆郎廳)'은 한국 고전서사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책방형 인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미 '목낭청(睦郎廳)'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목낭청조(睦郎廳調)'라는 표제어도 있다.10) 〈이고본 춘향전〉의 내용만으로는 이 부사와 목낭청이 상하 관계에 있다는 것 이외의 특수성을 파악해내기 어려우나, 또 다

7) 소설 속 인물에 관한 논의이나 서사문학 전반으로 확장 가능하다.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47쪽.

8) 김흥규, 앞의 논문(1983). 15쪽.

9) 위의 논문, 15쪽.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목낭청을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에 빗대어, 자기 주견 없이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목낭청조를 '1. 분명하지 않은 태도. 2. 어름어름하면서 얼버무리는 말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목낭청〉,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3.8.1. 접속;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목낭청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3.8.1. 접속.

른 춘향전 이본인 〈남원고사〉를 통해 목낭청의 정체가 '책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사는 서울에서부터 '긴한' 사이였던 그를 직접 '책방'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 칙방 니낭청ᄃᆞ려 뭇ᄂᆞᆫ 말이 이 ᄉᆞ람 니낭청 츈향의 쇼문은 그리 고명ᄒᆞ더니 지금 보ᄆᆡᄂᆞᆫ 유명무실이로셰 이 니낭청 ᄌᆞᄂᆞᆫ 셔울셔붓터 긴ᄒᆞᆫ지라 ᄃᆡ쇼ᄉᆞ를 니낭청과 의논ᄒᆞ면 콩을 가져 팟치라 ᄒᆞ여도 곳지듯ᄂᆞᆫ 터이오 또 ᄃᆡ답이 니현령 비현령ᄒᆞ여 평싱 ᄉᆞ면츈풍 두루마리라[11]

관련하여 오수창도 조선 후기의 일상적인 역사현실이 춘향전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하는 논의에서 책방[12]이라는 인물형에 주목한 바 있다. 춘향전 이본 14종을 분석하여, 책방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신관과 구관 어느 한쪽에 등장하는 경우, 구관사또와 신관사또의 휘하에서 적극적이고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 책객은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조직상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채 수령의 사적 참모로서 미묘한 처지에 놓인 존재였다. 그들은 고을 행정의 실무 역량과 함께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고을에서의 존재 기반과 생활 자원을 전적으로 수령에게 의지하던 인물들이었다. 책객에게 가장 빈번히 주어진 '낭청'이라는 호칭이나 신관사또가 거느린 책객에게 붙여진 '회계나리'라는 호칭, 작품에 등장하는 데 구태여 사또의 부름이 필요한 상황, 수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면서도 자기 나름의 어깃장을 빠트리지 않는 대화 등은 위와 같은 책객의 일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신재효남창』과 같이 늦은 시기에 나타났으면서도 향리 계층의 인식을 반영하여 책객의 존재를 삭제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완판84』에 이르러 책객의 면모는 대화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종합되는 동시에 섬기는 수령의 성격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더욱 선명하게 제시되었다. 구관사또

11) 김진영 외, 「남원고사」,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9, 83쪽 인용.

12) 오수창은 『목민심서』 등에 사용된 '책객'을 주 용어로 선택했으나, 본고에서는 〈남원고사〉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책방'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의 책객이 전후 맥락이나 대화 상대방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두서가 없는 모습으로 제시된 것은, 그 인물이 청렴한 사또를 섬기는 만큼 자신의 튼튼한 지위를 구축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곤궁한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활달한 신관사또의 책객은 수령을 향해 자기 나름의 주견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책객 일반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사또가 바라는 바에 기민하게 영합하는 언행을 보였다. 구관・신관 사또의 두 책객 사이에 그 사또들만큼이나 선명한 대비가 완성된 것이다.[13]

인물의 전형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책방이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조직상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채 수령의 사적 참모로서 미묘한 처지에 놓인 존재'였다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가 목낭청, 조 낭청, 이 낭청 등을 두루 포괄하는 '책방형 인물'의 전형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책방의 지위나 직책을 지니면서 '목낭청'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인물이 판소리 춘향가 및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외의 다른 고전 서사문학 작품에서도 거듭 포착된다는 점이다.[14]

이에 본고에서는 개별적인 작품 내적 역할과 성격에 따른 개성을 표출하는 동시에 책방이라는 사회적 지위 또는 직책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이들 인물군을 '책방형 인물'로 정의하고, 2장에서 '책방형 인물'이라는 인물 유형 구축의 근간이 된 그의 사회적 지위와 직책의 특수성을 밝힌 다음, 3장에서 한국 고전 서사 문학 작품들에 나타는 '책방형 인물'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3)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45쪽.

14) 오수창도 우화소설 〈까치전〉의 책방 구진을 예로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책객의 탈법 모리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 책객의 문제점은 조선후기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지적되었다. 우화소설 『까치전』에서는 책방(책객) 구진이 까치를 살해한 비둘기 쪽에서 뇌물을 받아 수청 기생 앵무새와 함께 안악군수 보라매로 하여금 비둘기의 죄를 살인이 아닌 희살(과실치사)로 판정하게 하였다." 위의 논문, 29쪽.

2. 조선 시대 기록을 통해 본 '책방(冊房)'에 관한 인식

〈춘향전〉의 '목낭청'이나 〈까치전〉의 '구진'은 선행연구에서도 독특한 인물형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는 책방이라는 지위 또는 직책의 특수성을 구체화하는 대신, 아전이라는 범주에서 이들을 다소 범박하게 다루어왔다.

> ㉠ 특히 뇌물을 받고 비둘기를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인물들의 행위는 적어도 당시 아전들이나 동수 등에 의해 서민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돈에 의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15]
>
> ㉡ 책방이란 조선 시대 고을 원의 비서 구실을 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조선 후기에는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조선 시대 지방의 아전들은 일정한 급료가 없고, 간혹 5~6년 간이나 임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단 그들이 직책을 얻게 되면, 임기 동안 갖은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책방 구진과 수청기생 앵무는 수령의 바로 곁에서 수령을 보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수령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수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비둘기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진과 앵무는 비둘기가 풀려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16] (…) 책방 구진과 수청기생 앵무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아전의 모습 그대로이며[17]

아전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책방 구진 역시 넓게는 아전에 속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전은 경아전과 외아전으로 나뉘고, 외아전은 다시 향리와 가

15) 임성래, 「〈까치전〉 연구」, 『어학연구』 2,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990, 12쪽.
16) 서상희, 「「까치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3쪽.
17) 위의 논문, 37쪽.

리로 나뉜다. 위의 논지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책방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다면 보다 정밀한 인물론 구축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책방의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조직상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채 수령의 사적 참모로서) 미묘한 처지'를 포착하였던 오수창은 보다 진전된 논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조선 시대 기록에 나타난 '책방'의 면모와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요즈음 풍습에 소위 책객(冊客)이라는 것이 있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다음 병객조(屛客條)에 자세히 나온다.) 만약 자기의 글솜씨가 거칠고 졸렬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좋다.[18]

㉠-2 요즈음 풍속에 소위 책객(冊客)이란 한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 하기(下記)(즉 날마다 쓰는 쌀·소금 등의 장부)를 살피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부의 회계는 무릇 공용(公用)이건 사용(私用)이건 기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뭇아전이나 하인들이 관계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총람(總攬)하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노비들과 많네 적네, 비었네 찼네 하도록 하니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이 책객이 아전들의 부정과 숨기는 짓을 적발하면 그 원망은 수령 자신에게 돌아오고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면 해는 수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잘한 하기(下記)는 지나치게 따질 것이 못 된다.

수령이 밝으면 아전들은 저절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좀도둑질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손실은 1만 전(錢)(백 냥)을 넘지 못할 것이고, 회계를 보는 책객을 1년 기르는 비용은 적어도 3~4만 전은 된다. 소득이 손실을 보

18) 近俗有所謂冊客。以掌會計。非禮也。宜除之。(詳下屛客條。) 若我之札翰荒拙。宜携一客。以掌書記。 정약용,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제2조 치장(治裝)」, 「부임(赴任) 6조」, 『목민심서』,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1288A_0020_030_0020&viewSync=OT,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충하지 못하고 수령 자신에게 누만 더할 뿐이니 책객은 제거해야 할 쓸모없는 것이다.

매양 보면 인색한 사람은 책객에게 거듭 일러서 하기(下記)를 자세히 밝혀내게 하는데, 그 때문에 책객은 아전과 약속하기를,

"수령의 성품이 깎기를 좋아하니 나도 괴롭다. 모든 소비되는 비용을 네가 더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깎겠다. 소용되는 기름이 5홉이면 너는 7홉으로 늘리고 나는 5홉으로 깎으면 네게도 손해가 없고 관에서도 잃는 것이 없으며, 나는 중간에서 허물과 책망을 면하게 되니 또한 서로 좋지 않겠는가."

하면, 아전들은 기꺼이 그와 한통속이 되어, 몰래 토산물을 책객에게 뇌물로 보내고 책객은 남용(濫用)을 덮어주어 이익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수령이 퇴임하는 날에 뭇아전들이 모여앉아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손뼉을 칠 것이다. 따라서 수령은 어리석고 책객은 간사하다는 두 가지 악명(惡名)만 남길 것이니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19]

㉡ 친인척이나 친구 사이에 외직을 맡아 나가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서 거취를 함께하는 자가 있다. 세상에서는 이를 책방(冊房)이라고 한다. 수령이 된 자는 홀로 거처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책객(冊客)을 데리고 가서 형제나 자질(子侄)처럼 친하게 대우해 준다. 그를 시켜 육방 관속을 총괄하게 하여 뇌물을 받아들이고, 공역(公役)을 감독하게 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며, 외부 사정을 염찰하게 하여 민정(民情)의 정보를 수집한다. 저 책객이란

---

19) 今俗有所謂冊客一人。以掌會計。以看下記。(卽日用米鹽之簿) 非禮也。官府會計。凡公用私用。無不入焉。凡群吏衆隸。無不繫焉。乃使無位無名之人。總攬此權。日與吏奴掌財者。曰多曰少曰虛曰實。豈當於理乎。斯人也。能發奸摘伏。則怨歸於我。能含垢匿瑕。則害於於我。將何益矣。下記細瑣。不足致察。官苟明矣。吏自不欺。雖有鼠竊。終年所失。不能萬錢。卽百兩。 會計之客。一年所養。少不下三四萬錢。得不補失。徒增我累。此宜去之贅也。每見吝嗇之人。申飭冊客。使之細櫛下記。客與吏約曰。官性好削。我亦苦矣。凡所費用。汝宜加錄。我其削之。油用五合。汝增爲七。我削爲五。在汝無損。在官無失。我於其間。得免咎責。不亦善乎。吏則欣然。遂與同心。陰以土物。賂遺冊客。庇覆其濫。與之分利。及官之歸。群吏相會以語此事。與之拍掌。官愚客詐。兩名俱惡。斯不可以不知也。정약용, '무릇 관부(官府)에 책객(冊客)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書記)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병객(屛客)」, 「율기(律己) 6조」, 『목민심서』,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1288A_0030_050_0010&viewSync=OT,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목민심서』의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자가 성실하고 공정하여 사심을 품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터럭만큼도 없다면 안 될 것 없겠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남을 따라가 책객 노릇을 하는 자가 어찌 꼭 성심으로 주인을 위할 뿐이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다. 뇌물을 받을 때엔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고서는 도리어 버젓이 상인에게 되 속여 팔아먹는다. 공역을 감독할 때엔 남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뒤에는 책임을 면하려고 둘러댄다. 민정을 염찰할 때엔 혹 꾸며서 아부하거나 혹 과장하여 겁을 준다. 도움 되는 실익이란 없고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폐단만 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보면 주인은 혹 몽땅 손실을 입어 딱하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책객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가 없다. 내 모르겠다만 외임을 맡아 나가는 것이 오로지 책객을 위해서이던가? 필경에는 전최(殿最, 고과 평정)의 제목이 나오면 '책객이 비방을 초래하였다〔冊客招謗〕' 하기도 하고, '어찌 책객을 거절하지 않는가〔胡不謝客〕' 하기도 하여 낮은 고과의 제목에는 모두 책객이란 글자가 들어 있다.

이른바 주인이란 자도 어리석지만 책객 역시 주인을 배반한 것이 많으니, 그가 한 짓을 추적해 보면 모두 속이고 훔치는 술법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다 한들, 차마 이런 짓을 하여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을 살찌운단 말인가?[20]

㉠은 정약용의『목민심서』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에서 정약용은 지방관이 부임할 때 동행을 많이 둘 필요가 없음을 말하며, 특히 책방(책

20) 姻親知舊間。有爲外任者。則必有隨往。與之同去就者。俗謂之冊房。盖爲守令者難於獨居。必率去冊客。親遇之如兄弟子侄。使之管攝官屬。通其賂遺。監視工役。副其所欲。廉察外間。廣其耳目。彼冊客也苟能純實公直。無一毫私詐用事之弊。則未爲不可。而世之如此者幾人。大抵隨人爲冊客者。豈必專以誠心爲其主人而已哉。亦欲自爲耳。通賂則從中潛受而反肆欺賣。看役則先取美好而後乃塞責。廉察則或飾以媚之。或張以恐之。而無補益之實。或反有難言之弊。及其歸也。主人則或全然見失。空手可憐。而冊客則未有不脫貧者。吾未知爲外任者將以專爲冊客地乎。畢竟殿最之題目出。則或曰冊客招謗。或曰胡不謝客。下等之題。幾皆有客字。其所謂主人亦愚矣。而客亦多負主人矣。跡其所爲。率皆欺偸之法。雖貧窮無賴。寧忍爲是。以陷人而自肥乎。윤기, 「집안의 금계〔家禁〕」, 『무명자집(無名子集)』 6책,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576A_0120_010_0110,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객)을 지목해 그 역할을 서기(書記)에 한정하되 결코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술된 것처럼 책방에 회계를 맡기는 일은 "요즈음 풍습"이라고 할 만큼 이미 널리 퍼져있는 터였다. 이에 정약용은 책방에 회계를 맡겼을 때의 폐단을 ㉠-2와 같이 자세히 밝혀두었다. 책방은 공식 관제에는 없는 직책으로, 고을 원이 사사로이 임용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인 책방이 회계 장부를 살피게 하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책방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면, 책방과 아전의 부정을 감시해 적발하든 모르고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용서하든 해가 될 뿐이다. 회계 장부를 깐깐하게 살피더라도, 책방과 아전이 '한통속이 되어 몰래 토산물을 책객에게 뇌물로 보내고 책객은 남용을 덮어주어 이익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어떤 대처도 소용없게 되니, 책방에게 회계를 맡기는 일 자체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 『무명자집』도 『목민심서』와 비슷한 시기의 기록으로, 책방의 존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윤기는, 외지로 부임하는 지방관이 친인척이나 친구 가운데 책방을 정하여 함께 가서 친하게 대우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렇게 내려간 책방의 행태가 대체로 부정적이었음을 비판하였다. 지방관이 책객을 활용해 1) 육방 관속을 총괄하게 하여 뇌물을 받고, 2) 공역(公役)을 감독하게 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며, 3) 외부 사정을 염찰하게 하여 민정(民情)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면, 책방은 그에 더해 1) 뇌물을 받을 때 중간에서 몰래 가로챈 다음 상인에게 되 속여 팔고, 2) 공역을 감독할 때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뒤에는 책임을 면하려고 둘러대며, 3) 민정을 염찰할 때 꾸며서 아부하거나 과장하여 겁을 준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책방은 '속이고 훔치는 술법'에 능한 자이다. 다만,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보면 (...) 책객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가 없다.", "아무리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다 한들"이라고 한 데서, 애초에 책방이 처했던 경제적 처지의 궁색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수창도 거의 같은 시기인 1822년, 평안도에 파견된 암행어사 박내겸이 보고한 책객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 책객이 수령이 거느린 기생과 함께 중간에서 청탁의 일을 맡고, 심지어 아전을 대신하여 창고 점검과 재판 진행을 주관하였으며, 뇌물을 받아 빚을 놓고 쌀을 팔아 이익을 노리니 그 집 주위가 시장을 이루고 원망하는 소리는 마을에 넘쳐났다는 것이다.[21]

> ㉢ 만경 현령(萬頃縣令) 임찬호(任璨鎬)에 대해서는 '공납을 지체한 것이 몇 해인데 독쇄(督刷)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관직에 있은 지 1년이 되도록 전혀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책객(冊客)에게 일임하였으니 원망과 탄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 번 이방(吏房)을 갈아치웠으니 이것이 무슨 정령(政令)입니까.' (…) 전 옥과 현감(玉果縣監) 오우선(吳友善)에 대해서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지 말 것이니, 개탄스럽게도 교활한 아전을 제지할 줄 몰랐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정사의 요령을 알지 못하였으니, 궁핍한 백성이 어찌 보호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빚어 놓은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흡사 반쯤은 죽은 사람처럼 취한 듯 꿈꾸는 듯하여, 일이 모두 책객에게서 결정되니 사방에서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22]

19세기 전반에 이처럼 책방의 폐단이 널리 지적되었음에도, 19세기 말 기록인 ㉢으로 볼 때, 그것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만경 현령 임찬호나 옥과 현감 오우선의 사례에서 보듯, 관아의 모든 일을 책객에게 맡겨버리는 지방관도 있었다.

정리하면, 조선 시대 책방은 지방관이 자신의 친인척 또는 친구 가운데

---

21) 오수창, 앞의 논문, 29쪽.

22) 萬頃縣令任璨鎬段, 愆納屢歲, 未聞振刷, 居官周年, 全沒施措, 一任冊客, 宜有怨咨, 三遞吏房, 是何政令 (…) 玉果前縣監吳友善段, 莫曰柔能制剛, 嗟猾吏無所知戢, 抑亦惠不知政, 窮民何其保懷? 坐若塑於木偶, 渾是半生醉夢, 事皆決於冊客, 能無四方該聽是如爲白乎旅「지방관을 감찰한 결과를 보고한 전라도 암행어사 이면상의 서계에 대해 회계하는 이조의 계목」(고종 29년 임진(1892) 윤6월 11일(정묘) 맑음), 『승정원일기』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29_06B_11A_00180_2003_153_XML,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선택하였는데, 대개 한미한 처지[23]의 인물이었다. 사적으로 고용된 비서처럼, 문서 일뿐 아니라 회계 일까지 두루 맡았으며, 육방 관속의 총괄이나 공역 감독, 외부 사정의 염찰을 수행하기도 했다. 일부 작품에서 책방이 '회계 생원', '회계나리'등으로 불리는 배경이나, 책방이 송사에까지 긴밀하게 관여하였던 정황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게 공식적으로 맡겨진 소임과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지방관의 측근으로서 일부 임무를 대신 맡았기에, 고을이나 관아 안에서는 '호가호위(狐假虎威)'가 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3. 한국 고전 서사문학 속 '책방(冊房)'의 형상과 유형

책방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수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전 서사문학 안에서의 형상도 수령과의 관계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책방' 형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철저한 상하 관계에 따라 수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책방형 인물로, 그 종속된 처지에서 비롯되는 언행이 작품 안에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책방형 인물로, 그는 탐관오리로서의 수령과 함께 작품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셋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첫째 유형과 비교해 종속의 정도가 덜한 책방형 인물로, 작품 안에서 수령을 희화화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23) "저에게 과연 의지할 곳 없는 서족(庶族)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부임할 때 그도 데리고 갔습니다. 신미년 1월에 술에 취해 책실(冊室)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불러다 여러 가지로 알아듣게 타이르고 2월 15일 이후에야 짐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일성록』(순조 13년 계유(1813, 가경)),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W0_A13_03A_11A_00050_2022_064_XML,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한다. 넷째, 수령과 별다른 관련 없이 그 자신의 개성 또는 한미한 처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책방형 인물이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책방형 인물의 예는 소설 춘향전 또는 판소리 춘향가의 '○낭청',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의 '골생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설 춘향전이나 판소리 춘향가 일부 이본에는 몽룡의 아버지 이 부사가 목낭청을 불러들여 아들의 문재(文才)를 자랑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한 예로 〈이고본 춘향전〉을 살펴보면, "자네 거기 앉소."라는 이 부사의 말에 목낭청은 "앉으라면 앉지요."라고 답한다. 다시 이 부사가 "문장 났네."라고 하면 목낭청이 "문장 났지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자네 뉘 말인지 알고 대답하나."라는 물음에 "글쎄요."라고 대꾸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목낭청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일 없이 그저 이 부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풀이할 뿐이다.[24] 목낭청이라는 인물은 서사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이 부사의 후임으로 남원에 내려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신관(新官) 사또와 짝을 이루어 등장한다. 기생 점고에 불참한 춘향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나섰던 사령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오는 장면에 "여보게 목낭청." "예." "저놈덜 꼴 좀 보게." "글쎄요." "저놈들을 어찌하면 좋을고." "글쎄요."[25]하는 신관 사또와 목낭청 간 대화가 배치되며, 둘의 대화는 이후 춘향의 현신 장면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장면의 목낭청과 두 번째 장면의 목낭청은 동일 인물일 수 없다. 그 상관이 되는 이가 이 부사와 변학도로 각기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목낭청은 구체적인 인물형이라기보다, '책방형 인물'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재백 창본 춘향가〉에서는 이 둘이 아래와 같이 '목낭청'과 '허 낭청'으로 분화된다. 그러나 등장 시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는 외모가 묘사되고, 사

24) 김진영 외, 「이명선 소장본 〈춘향전〉 (일명 이고본)」, 『춘향전 전집』 13, 박이정, 2004, 331쪽 인용.

25) 위의 책, 369쪽 인용.

또의 말끝을 받아 대답하다가 실수하여 면박당하는 대화가 이어진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둘을 비교하자면, ㉠의 목낭청은 전형적인 첫째 유형에, ㉡의 허 낭청은 셋째 유형에 조금 더 가깝다.

㉠ 칙방의 몽낭청 나오시릐라 낭청이 나오난듸 엇씨 말나쩐지 빈꼽을 탁 통기면 문지가 풀신출신 나고 거름을 거르면 불알의셔 왕방울 쇼리가 나는 양반이 갓셜 벽의 걸인다시 발짝 지쳐씨고 쥭얼 묘 싼즈로 짝 씨고 츙츙 드러와 물읍이 버셔지게 안지며 ᄉᆞ또 이 ᄉᆡ 심심ᄒᆞ시지요 죠히 자ᄂᆡ나 ᄂᆡ나 ᄋᆡ시 이후로 갓치 즈라나며 글을 일거 보왓건니와 아히ᄃᆡ 글일키쳐로 시른게 또 인나 몽낭청은 지여부지간의 시셰ᄃᆡ로 ᄃᆡ답은 죵풍임이엿짜 글시오 아히ᄯᆡ 글일씨쳐로 실쑈릭가 글일씨가 시르면 잠도 오난 듯 두통도 치난 듯 잔쐬가 비상ᄒᆞ지 잔쐬가 비상ᄒᆞ지요 이 ᄋᆡ는 글일씨를 시작ᄒᆞ면 일고 씨고 씨고 일고 불쳘쥬야 ᄒᆞ데그려 가만니 본인까 불쳘쥬야 합씌다 또한 필지가 졀쯩ᄒᆞ지 필지가 졀쯩ᄒᆞ지요 졈 ᄒᆞᆫ나를 툭 찍의면 고봉취셕이요 한 일을 그의면 쳘니의 진운이요 갓머리 혹은 작규청난니요 픽암을 논지ᄒᆞ면 풍난뇌젼이요 ᄂᆡ려 그어 치난 혹은 노셩도졀괘여벽이요 창파 혹의로 일를진ᄃᆡ 마른 등널츌갓치 버더가다 치난 ᄃᆡ난 셩닌 숀우 씃갓치 치되 기운이 부죡ᄒᆞ면 붓ᄯᆡ만 셰울 씌 셰우고 발길노 툭 ᄎᆞ올여도 혹은 혹ᄃᆡ로 쏙쏙 되데그려 가만이 보인까 혹은 혹ᄃᆡ로 쏙쏙 됩듸다 글씨 듯게 그 ᄋᆡ 아홉 살 먹어쓸 졔 셔울집 쓸아릐 ᄆᆡ화 남긔 잇기로 글노 두고 글을 지의라 ᄒᆞ엿쩐니 잠시 달어 쎄그려 무엇시라 ᄒᆞ엿습쩐익까 남지영이 북고한이 부츈츄우일슈라 남역 가지난 영화요 북역은 말나씬니 봄과 가을릴 한 남게 붓첫데그려 잘ᄒᆞ엿쇼 잘ᄒᆞ여 그 ᄋᆡ가 글에 졍셩듸리난 법과 일남쵹귀 ᄒᆞ난 법이 묘당의 당당명ᄉᆞ 될 써시요 장ᄂᆡ 졍싱은 쏙 ᄒᆞ오리다 ᄉᆞ또게옵셔 너머 죠와라고 흐흐 우시며 졍싱이야 엇씨 바릐겻나만은 ᄂᆡ 싱젼의 급졔난 쉬 할듯 ᄒᆞᄂᆡ 급졔만 쉽게 ᄒᆞ면 츌육이야 범면이 식키견나 안이요 그 ᄋᆡ가 졍싱을 못ᄒᆞ면 장싱을 ᄒᆞ여도 ᄒᆞ기난 쏙 ᄒᆞ오리다 스또 홰를 ᄂᆡ여 이 ᄉᆞ람 즈네 뉘 말노 알고 ᄃᆡ답을 그 짜우로 ᄒᆞ나 ᄂᆡ 엿틔 ᄃᆡ답은 ᄒᆞ엿씨나 뉘 말린 죨은 몰나쑈 이런다 ᄒᆞ엿씨나 무슌 그럴 니가 잇쓰리요[26]

26) 김진영 외, 「장자백 창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108-109쪽.

㉡ 칙방 듭시릐라 허낭청이 드러오난듸 인물은 인죵지ᄒᆞ벌리라 장광은 일쳑이요 면광은 ᄉᆞ면 두 쎔 가옷식인듸 망근듸 압니망은 쓸싸진 어레미 체 박쿠요 코난 굴문 빈듸코라 그 즁의 공것셜 만이 먹어 이마쌕이 훨쩍 버셔져 갓 못너머가게 ᄒᆞ노라고 망근 웃당쥴의다 보록 쥬먼니 ᄒᆞ나를 다라 갓셜 벽의 건득기 씨고 억기가 쏙지게 밧친 듯ᄒᆞ고 박살이 밧작 밧타 셧쌀 듸목의 맛침 신찬 듯ᄒᆞ고 빈 코를 공연이 훌젹훌젹ᄒᆞ며 드러와 안진이 ᄉᆞ또이 ᄒᆞ신 말삼 여보쇼 낭청 예 잘 싱게졔 잘 싱겻쑈 일식이졔 졀식이요 얼골이 묘골노 싱게졔 퇴기골노 싱겟쇼 이 ᄉᆞ람 ᄌᆞ네 뉘 말노 알고 듸답을 그리 ᄒᆞ난고 듸답은 ᄒᆞ엿쓰나 뉘 말인지 모르깃쇼 져긔 안진 츈향말이로시 오 져게 츈향이요 잘 싱겟쇼 글시 졔가 ᄂᆡ 슈청을 마다 ᄒᆞ네 마다는 것셜 ᄂᆡ덜 엇젼단 말이요 ᄉᆞ또 츈향 안이 보는듸 말죰 잘ᄒᆞ여 달나고 눈짓셜 실금실금한이야 도로 보ᄂᆡ란 말삼이요 어 그 ᄉᆞ람 거 무신 말린고 ᄉᆞ또이 날을 보고 눈짓ᄒᆞ기여 ᄂᆡ 보ᄂᆡ란쥴 아라쑈 여보게 ᄂᆡ 즁신죰 ᄒᆞ라는 말일시 ᄒᆞ기를 일의깃쑈만은 ᄉᆞ또께셔 당쵸의 츈향을 부르시지 말고 날노 마픠를 보ᄂᆡ신 게 오른걸 일이 죰 경션이 도엿쑈만은 임의 불너게씬이 불가불이ᄆᆡ 혼ᄉᆞ로 할쌕ᄉᆞ슈가 업쑈 이 ᄋᆡ 츈향아 ᄉᆞ또 슈청만 드러씨면 남원 경ᄂᆡ 젼답이 모도 네 젼답이로다 잔말 말고 슈청 거힝ᄒᆞ여라 (...) 낭청이 공연이 홰를 ᄂᆡ여 네 이년 요망한 연이로고 양반의게 츙회졀향이 잇졔 긔싱관비의게 츙회졀향 잇단 말인이 네 연이 슈졀을 ᄒᆞ면 ᄃᆡ마노라께셔난 짝 기졀을 ᄒᆞ깃쑤나[27]

〈남원고사〉에서도 두 책방은 분화되어 나타나는데, ㉠의 조 낭청은 몽룡의 부친이자 남원의 전임 사또 이 부사의 측근이며, ㉡의 이 낭청은 남원의 신관(新官) 사또이자 춘향을 핍박한 변 부사의 측근이다. 두 낭청은 '책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형상화에는 차이가 있다. 이 낭청이 변 부사와 "셔울셔븟터 긴ᄒᆞᆫ" 관계였다는 ㉡의 서술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 책방이 지방관을 따라 내려와 문서 일이나 회계 일을 보면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가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사실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반면 ㉠의 조 낭청은 잠자코 사또의 말을 듣기만 할 뿐 변변한 대사조차 없는 주변 인물이다. 그러나 조 낭청 역시, 사또가 과거의 집안일을 스스럼없이

27) 위의 책, 136-137쪽.

공유할 만큼 그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으며, 통인이 몽룡의 변명을 전하러 왔을 때 동석해 있을 만큼 측근으로서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 ᄉᆞᄯᅩ 고지듯고 ᄎᆡᆨ방 ᄃᆞᆫ낭청ᄃᆞ려 ᄒᆞᄂᆞᆫ 말이 향ᄌᆞ의 션산쇼 천장 ᄒᆞ올 ᄯᅢ의 홍천 박싱원이 풍양고을 산쇼를 보고 덥허노코 ᄂᆡ 말ᄃᆡ로 여긔 ᄡᅳ라 ᄒᆞ며 문필봉이 두려시 안산이 되고 공명봉이 병풍 두른듯ᄒᆞ여 쥬산이 되여 시니 ᄌᆞ숀의 문댱은 념네업고 공명이 긋치지 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잡고 권ᄒᆞ기의 그 말ᄃᆡ로 그 산쇼의 뫼셧더니 이제야 산음인 줄 황연이 ᄭᆡᆺ닷긔네 그 아희가 긔특ᄒᆞᆫ 줄이 ᄒᆞᆫ갓 남쳐로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잠 잘 줄 잇고 한ᄉᆞᄒᆞ고 글만 ᄒᆞ려ᄒᆞ니 아무려도 문댱은 념녀업셔 ᄒᆞ며 못ᄂᆡ ᄉᆞ랑ᄒᆞ더라[28]

㉡ 신관이 이를 보ᄆᆡ ᄆᆞ음이 더옥 착급ᄒᆞ고 의ᄉᆡ 가장 황홀ᄒᆞ나 그랴도 먹은 갑시 잇셔 남의 말을 드ᄅᆞ랴고 ᄎᆡᆨ방 니낭청ᄃᆞ려 뭇ᄂᆞᆫ 말이 이 ᄉᆞ람 니낭청 츈향의 쇼문은 그리 고명ᄒᆞ더니 지금 보ᄆᆡᄂᆞᆫ 유명무실이로셰 이 니낭청 ᄌᆞᄂᆞᆫ 셔울셔븟터 긴ᄒᆞᆫ지라 ᄃᆡ쇼ᄉᆞ를 니낭청과 의논ᄒᆞ면 콩을 가져 팟치라 ᄒᆞ여도 곳지듯ᄂᆞᆫ 터이오 ᄯᅩ ᄃᆡ답이 니현령 비현령ᄒᆞ여 평싱 ᄉᆞ면츈풍 두루마리라[29]

실전판소리 〈강릉매화타령〉에서 책방 골생원은 부수적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방형 인물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작품 속에 형상화된 양상을 보면,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는 외모의 묘사가 등장부에 배치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첫째 유형에 가깝다.

㉠ 아조 丁未初 江原道 江陵 □□□□使道 到任時 冊房으로 ᄂᆡ어온 한 양班이 □□□□□□지와 体法 볼作시면 身長□ 두볍 可옷 □□□□□암니마 망근쎤 ᄭᅩ오 입은 □□□□□□□□□□□ 쥼치 자바 홀친 덧ᄒᆞ고, ᄒᆞᄂᆞᆫ □□□□□□□ 고요 난장이 곰사동이 외작불규 안잔잘이 □□로곡 生긴 양班이 비록 体질 긔여ᄒᆞ나 骨生員 ○○才文筆 긔니ᄒᆞ다. 江陵使道 사앙ᄒᆞ야 冊房

28) 김진영 외, 「남원고사」,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9, 29쪽 인용.
29) 위의 책, 83쪽 인용.

□ 너에 두고 江陵 일等 名妓 梅花ᄂᆞᆫ □□□□ 房守나 분부ᄒᆞ이[30]

㉡ 한창 이니 로일 저긔, 骨生員 흥이 낫셔 ᄆᆡ화 함긔 ᄃᆡ무할 제, 제옥닷이 ᄯᅮ드이며 곰배팔 ᄂᆡ둘으며 쥬적거이 노일 젹의, 사도 담비잔을로 밧각 지지이, 骨生員 감작 놀ᄂᆡ야 본이, 인간이 分明ᄒᆞ다.[31]

골생원은 강릉부사가 책방으로 삼아 데려온 인물로, 강릉부사가 그의 포재(抱才)와 문필(文筆)을 아껴 기생 매화를 내어줄 정도로 둘의 관계는 긴밀했다. 수령에 철저히 종속된 존재이나, 작품의 주요 서사가 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보조 인물로 등장하는 여타의 책방형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강릉부사의 주도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안에서 희화화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보면, 종속된 처지에서 비롯되는 언행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 생사(生死)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흥이 나서 매화와 대무(對舞)하던 골생원의 몸을 사또가 담뱃불로 바싹 지져 상황을 일깨우는 ㉡의 장면을 통해, 수령에게 완전히 종속된 처지에서 비롯되는 언행이 작품 안에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첫째 유형의 특징을 또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목랑청'과 '골생원'이 김연수의 동초제 〈춘향가〉에서 한데 묶여 언급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32]

둘째 유형에 속하는 책방형 인물의 예는 〈까치전〉의 '구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0) 김기형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5 :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107쪽 인용.

31) 위의 책, 129쪽 인용.

32) [효] 통인이 사또전에 그댈 여쭈웠겄다. 사또 가만히 들어보시니 글 읽는데 자미를 꼭 부친 모양이라. 자랑을 허시려고 책방에 목랑청(睦郞廳)을 청하였지. 목랑청이 들어오는 듸 먹적골 홈다리 골생원(骨生員) 채림으로 들어와 사또 턱밑에 가 바싹 꿇어앉으니 사또 기쁜 마음에 도련님을 추는듸 듣는 사람이 뉘 말인지 모르게 두미(頭尾)없이 말을 내겄다. 김진영 외, 「김연수 창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3, 박이정, 1997, 34쪽 인용.

> 마침 비둘기의 처자 동생이 심야(深夜)에 찾아가 금백주옥(金帛珠玉)과 채단(采緞)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동지님의 창해 같사온 도량(度量)으로 이 일을 주선(周旋)하와 아무쪼록 희살(戱殺)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지 답왈, "'유전(有錢)이면 사귀신(使鬼神)이라' 하였으니 염려치 말라. 내 들으이 '책방(冊房) 구진과 수청기생 앵무가 일총(一寵)한다'하오니 금은보패(金銀寶貝)를 드려 좌우 청촉(請囑)한 후에 여차여차 하자."하고, 약속을 정하고, "각청(各廳) 두목과 제번(諸番) 관속(官屬)에서 뇌물(賂物) 쓰고 이리 이리 하면 고독단신(孤獨單身) 암까치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자연 희살이 되리라"[33]

우화소설 또는 송사소설로 분류되는 〈까치전〉에 등장하는 '구진'은 책방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의에 가담하는 인물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제로 수령의 측근으로 행세하며 그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처럼 이용하거나, 여러 아전, 관리, 하인 등과 교류하며 횡령을 일삼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책방이 존재했다. 〈까치전〉의 구진은 그러한 인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책방형 인물의 범주에는 이처럼 소극적으로 자신의 무사 생존만을 꾀하는 인물은 물론, 적극적으로 불법을 일삼으며 뇌물을 탐하는 부정부패한 인물도 포함된다.

셋째 유형에 속하는 책방형 인물의 예는 소설 춘향전의 '회계나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장재백 창본 춘향가〉의 '허 낭청'도 이 유형에 가깝다. 이는 사또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투에서도 확인되는데, 같은 〈장재백 창본 춘향가〉의 '목낭청'이 사또에 대해 철저한 존댓말을 구사했다면, '허 낭청'의 경우 "글시 졔가 ᄂᆡ 슈청을 마다 ᄒᆞ네 마다는 것셜 ᄂᆡ덜 엇젼단 말이요."라고 대꾸하기도 한다. 또 춘향과 사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도 있다.[34] '남원 경내 전답이 모도 네 전답'을 운운하며 거들먹거리는 것은 그 자신은 물론 사또에 대한 비판으로

33) 신해진·유영대 편역,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97쪽.
34) 오수창, 앞의 논문, 33쪽.

이어질 수 있는 언행이다.

칙방 듭시릐라 허낭청이 드러오난듸 인물은 인죵지ᄒᆞ벌리라 장광은 일쳑이요 면광은 ᄉᆞ면 두 쎔 가옷식인듸 망근틱 압니망은 쌜싸진 어레미 쳬박쿠요 코난 굴문 빈듸코라 그 즁의 공것셜 만이 먹어 이마쌕이 훨썩 버셔져 갓 못너머가게 ᄒᆞ노라고 망근 웃당쥴의다 보록 쥬먼니 ᄒᆞ나를 다라 갓셜 벽의 건득기 씨고 억긔가 쏙지게 밧친 듯ᄒᆞ고 박살이 밧작 밧타 셧쌀 듸목의 맛침 신찬 듯ᄒᆞ고 빈 코를 공연이 훌젹훌젹ᄒᆞ며 드러와 안진이 ᄉᆞ또이 ᄒᆞ신 말삼 여보쇼 낭청 예 잘 싱게졔 잘 싱겻쑈 일식이졔 졀식이요 얼골이 묘골노 싱게졔 퇴기골노 싱겟쇼 이 ᄉᆞ람 ᄌᆞ네 뉘 말노 알고 듸답을 그리 ᄒᆞ난고 듸답은 ᄒᆞ엿쓰나 뉘 말인지 모르깃쇼 져긔 안진 츈향말이로시 오 져게 츈향이요 잘 싱겟쇼 글시 제가 ᄂᆡ 슈쳥을 마다 ᄒᆞ네 마다는 것셜 ᄂᆡ덜 엇젼단 말이요 ᄉᆞ또 츈향 안이 보는듸 말죰 잘ᄒᆞ여 달나고 눈짓셜 실금실금한이 야도로 보ᄂᆡ란 말삼이요 어 그 ᄉᆞ람 거 무신 말린고 ᄉᆞ또이 날을 보고 눈짓 ᄒᆞ기여 ᄂᆡ 보ᄂᆡ란쥴 아라쑈 여보게 ᄂᆡ 쥽신죰 ᄒᆞ라는 말일시 ᄒᆞ기를 일의깃쑈만은 ᄉᆞ또께셔 당쵸의 츈향을 부르시지 말고 날노 마픽를 보ᄂᆡ신 게 오른걸 일이 죰 경션이 도엿쑈만은 임의 불너게씬이 불가불이ᄆᆡ 혼ᄉᆞ로 할쌕ᄉᆞ 슈가 업쑈 이 ᄋᆡ 츈향아 ᄉᆞ또 슈청만 드러씨면 남원 경ᄂᆡ 젼답이 모도 네 젼답이로다 잔말 말고 슈쳥 거힝ᄒᆞ여라 (...) 낭청이 공연이 홰를 ᄂᆡ여 네 이 년 요망한 연이로고 양반의게 츙회졀향이 잇졔 긔싱관비의게 츙회졀향 잇단 말인이 네 연이 슈졀을 ᄒᆞ면 ᄃᆡ마노라께셔난 짝 기졀을 ᄒᆞ깃쑤나[35]

넷째 유형에 속하는 책방형 인물의 예는 〈꼭두각시극(일명 박첨지 딸)〉의 '목랑청', 설화 〈박문수를 도와 준 복례〉의 '박문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해도 장연 지방에서 전승된 인형극인 〈꼭두각시극(일명 박첨지 딸)〉에는 '목랑청'이라는 인물이 제2과장과 제4과장, 두 곳에 등장한다.

㉠ 상좌중들이 나와서 박첨지의 딸과 어우러져 논다. 상좌중이 박첨지 딸

35) 김진영 외, 「장자백 창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136-137쪽.

의 어깨를 툭 친다. 박첨지 딸 춤추던 것을 멈추고 섰다가 다시 추기 시작한다……어깨를 끼고 추기도 한다.

한 상좌중이 또 하나의 상좌중과 어우러진 박첨지 딸을 희롱하다가 싸운다. 하나를 때려 눕히고 빌다가 서로 사과한 후 또 같이 춤을 춘다. 상좌중들이 들어 간 뒤에 상전중이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나온다. 색시들이 춤추는 것을 바라다 본다. 상전중이 으씩하여서 춤추기 시작한다. 색시 하나를 쳐다본다.색시가 돌아선다. 상전중이 멀거니 서서 바라 보다가 다시 춤추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또 한번 건드려 본다. 몇 번 거듭한 후 색시와 어우러져 서로 같이 어깨를 겨누고 춤춘다. 한참 재미 있게 춤추는데 목랑청이 하하하……웃으면서 나온다. (상전중이 들어 간다.)

목랑청: 여보게 저 거물거물하다가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산바지: 더 뒤'절 상전중이 내려 와서 색시를 데리고 놀다가 간다네.
목랑청: 아니 중이 색시를 데리고 놀아! 중이라는 것은 상전에 내리면 바둑이나 두다가 가는 것이 왈 중이지 색시를 데리고서 꼭가지질하며 춤추는 것이 왈 중이냐, 하……여봐라 이 에미네들아. 중이 맛이 있더냐, 데리고 노는 것이, 야, 이리 오너라. (색시 돌아 선다.) 하……여보게 이 에미나이들이 말 아니 듣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춤을 한 번 올릴 생각이 있네.
산바지: 그러면 춤으로 한 번 올려 보게.
목랑청: 하…… (웃으면서) 떵-꿍 떵-꿍 (춤춘다.)[36]

㉡ 박첨지: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장안활자와 목랑청이 나와서 춤 한 거리씩 춘다네. 나 그럼 들어가네. (박첨지 들어 간다)
장안활자: 떼루떼루 떼루떼루 떼- 장안활자가 나간다. (떼루떼루 떼루떼- 연거피 한다.)
장안활자가 나온다.
떵꿍 떵꿍 뗑쿵 뗑쿵

이 때 목랑청이 가만히 나온다. 같이 춤을 춘다. 이것을 장안활자가 보고

36) 권택무, 「황해도 인형극(일명 박첨지 딸)」, 『조선민간극 : 역사적 고찰및 사료집』 예니, 1989, 197-198쪽.

발길로 찬다.

장안활자: 이 자식아 수인사도 없이 남의 춤터에 나와서 춤추느냐.
목랑청: 하……야 이 자식아! 무엇하는 자식이 남 춤추는데 발길질이냐.

목랑청이 장안활자를 때린다.

장안활자: 야 이 자식아! 너는 무엇하는 자야. (발'길로 찬다.)
목랑청: 야 이 자식아! 나는 목랑청이다. 대관절 너는 무엇이야.
장안활자: 나는 장안활자다. 이 자식아! 장안활자도 모르고 추느냐. (서로 때린다. 목랑청 하-웃는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한 뒤에) 야 그런게 아니다. 너도 활량이요 나도 활양인데 그래 놀이청에 나와서 그냥 들어 가겠나. 춤이나 우리 한 거리씩 추고 들어가자, 싸우지 말고.

둘이 같이 춤을 추다가 잠자코 들어 간다.[37]

㉠은 박첨지의 두 딸, 상좌중, 상전중, 목랑청, 현묵대사 등이 등장하는 제2과장의 일부로, 박첨지의 딸들과 춤추는 상전중을 꾸짖고 그 자신이 박첨지의 딸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인물로 묘사된다. ㉡은 장안활자와 목랑청이 등장하는 제4과장의 일부로, 여기서 목랑청은 먼저 춤을 추고 있던 장안활자와 한바탕 서로 싸운 후에 어울려 춤을 추는 인물로 묘사된다. 목랑청은 두 과장에서 모두 처음부터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인물이며, 그가 혼자 또는 둘이서 추는 춤이 해당 과장을 마무리한다. 장연의 〈꼭두각시극〉은 〈꼭두각시놀음〉과 비교해 연극적 갈등이 약화되고 오락물로서의 유희적 요소가 확장된 것이 특징인데, 목랑청은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인물이다. 갈등을 예각화하고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 불거진 갈등을 '속없는' 한 판 춤으로 무마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설화 〈박문수를 도와 준 복례〉에서는 외종숙을 따라가 책방 살이를 하였

37) 위의 책, 201쪽.

던 '박문수'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그의 가난한 경제적 처지이다. "군수 밑에 가서 그냥 뭐 심부름이나 하구, 무신 돈이 있을 텍이 있나."라는 구연자의 평가와 그 경제적 처지로 인해 기생집에서 "아 드런 자식 가라."라는 말을 듣는 상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분이 진주목사루 갔는데, [조사자: 네.] 이 박문수는 고령 박씨에,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니 정 뭣허니까 그 형제를, "다 진주루 오라. 내가 인제 멕여 살릴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형은, "선영 산소가 여게 있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읍시니까 나는 원통 맏자슥이 됐구 그래니까 갈 수가 읎고 동생은 가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는 넌, 동생은 가라." 그래니까 동생이 인제 그럼 인제 진주를 갔는데 글 좀 배우구 그랬는데 예전엔 인제 그 뭐 책방이라구 있는데 요즘으루 말하면 군수에 무슨 비서폭쯤 되는 인제 이게여. 거 가서 인제 있는데, 나이 그래 인제 꽤 많었는데, 그 기생방에 댕기는데, 기생이 하내(하나)있는데, 진주 기생 추월이여. 가을 추(秋)자, 달 월(月).

기생의 이제 거 또 종이 하나 있어. 그거 인제 복례라구. 성이 기간데, 기복례라는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추월이의 종인데 두 살이 더 먹어. 이런대도 형편이 없어 인제 거 기생의 종노릇을 하는데. 기생집에 인제 더러 가면 그 뭐 군수 밑에 가서 그냥 뭐 심부름이나 하구, 무신 돈이 있을 텍이 있나. 이 기생 노릇 하는 건 인제 돈을 많이 벌라구선 하는데, 거 기생 뭐 갖다 줄 기 없구 또 그 조악허게 지냈는데, 기생에미가 보니까, 아 그 박서방인지 빌어먹을 건지 오기만 하믄 그여 제 딸허구만 허탄하게 뭐 이래기만 하지 소득이 아무 것두 읎네. 그러니까 밉다 말이여. 못 오게 하지. 못 오게 해도 인제 그 추월이는 그 박어사 인제 될 분을 그렇게 싫어는 안하고 인제 이럭했는데, 혹 저 어떻게든지 그 어머니한테 들리믄 막 야단치구 이렇게 해.

그래는 판에 어느 날은 갔더니마는 "하, 저 박간지 저 박서방인지 저 또 왔다."구 막 내쫓어. 인제 맘이 그렇게 되거던. 그 딸이 하는 말이, 그 복례란 종한테, "네가 슬며시 박서방을 보내는 척을 하고 뒤루 갖다가서는 어느 방에다 놨다가, 내가 손님을 받다가 인제 손님을 보내고는 박서방을 내가 맞이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라." 이랬단 말야. 그래서 인제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서 거를 뒤루 인제 손짓을 해서 어느 방으루 들어오라구 했는데, 거길 가

니 아 거길 쫓아와서 물을 막 끼 얹으면서 말여, "아 드런 자식 가라."구 온통 이 야단치니까 그거 뭐 또 남자 배짱이 있지. □□ 넌 네미 뭐뭐뭐 거기 안 가믄 뭐 못하는가? 인제 오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두 인제 가믄 또 그 추월이가 아주 잘못했다구 빌면서 게 오라구 그래, 그래 거 잘 지내다가[38]

'암행어사'의 대명사이기도 한 박문수가 겪었던 의외의 불우한 시절과 가난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책방'이라는 처지였던 것이다.

이 유형의 책방형 인물을 살펴보면, 수령과 별다른 관련 없이 그 자신의 개성 또는 한미한 처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눈앞의 갈등을 '속없는' 한 판 춤으로 무마하며 '하……' 웃고 뭉뚱그리는 데서 표출되는 '목랑청'의 개성이나, 추월 모친의 박대에 당당히 맞서지도 추월과의 관계를 결단력 있게 끊어내지도 못하는 '박문수'의 한미한 처지는 앞서 살펴본 '책방형 인물' 유형의 성향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에 등장하는 '책방'이라는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책방형 인물'의 '책방(冊房)'은 공식 관제(官制)에는 없는 직책으로, 고을 원이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책객(冊客), 책실(冊室)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조선 시대 아전은 중앙 각사의 하급 관리인 '경아전(京衙前)'과 지방 관서의 하급 관리인 '외아전(外衙前)'으로

38) 「횡성읍 설화 15: 박문수를 도와 준 복례」, 『한국구비문학대계』(채록일: 1983.8.18, 제보자: 김태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DB, http://gubi.aks.ac.kr/web/VolView1__html5.asp?ur10no=tsu__0499&ur20no=Q__0499__2__F__015&dbkind=1&hilight=%EC%B1%85%EB%B0%A9&navi=%EA%B2%80%EC%83%89:%EC%B1%85%EB%B0%A9(%EB%82%B4%EC%9A%A9), 2023. 8. 2. 접속.

나뉘었고, 외아전은 다시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로 구분되었다. 해당 지방 출신으로서 대대로 아전 직을 수행해온 이들을 향리, 다른 지방에서와 임시로 아전 직을 맡은 이들을 가리라고 했는데, 지방관을 따라 내려와 문서 일이나 회계 일을 보면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던 가리, 그가 바로 책방이다.

인물의 전형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책방이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조직상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채 수령의 사적 참모로서 미묘한 처지에 놓인 존재'였다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가 목낭청, 조 낭청, 이 낭청 등을 두루 포괄하는 '책방형 인물'의 전형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책방이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수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전 서사문학 안에서의 형상도 수령과의 관계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철저한 상하 관계에 따라 수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책방형 인물로, 그 종속된 처지에서 비롯되는 언행은 작품 안에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책방형 인물로, 그는 탐관오리로서의 수령과 함께 작품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셋째, 기본적으로는 상하 관계에 놓여 있으나, 첫째 유형과 비교해 종속의 정도가 덜한 책방형 인물로, 작품 안에서 수령을 희화화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넷째, 수령과 별다른 관련 없이 그 자신의 개성 또는 한미한 처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책방형 인물이다.

참고문헌

김기형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5 :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3, 박이정, 1997.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9.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3, 박이정, 2004.
신해진·유영대 편역,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곽정식, 「작중 인물을 통해 본 「裵裨將傳」의 兩面性 : 「방자」와 「사또」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7, 한국어문교육학회, 1984, 97-117쪽.
곽정식, 「「春香傳」 改作에 따른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樣相」, 『한국문학논총』 11, 한국문학회, 1990, 55-180쪽.
권두환・서종문, 「房子型 人物考 - 판소리系 小說을 中心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회,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일조각, 1978. 3-36쪽.
권태효, 「무속신화에 나타난 죽음 인도신, 저승차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 『일본학연구』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125-154쪽.
권택무, 「황해도 인형극(일명 박첨지 딸)」, 『조선민간극 : 역사적 고찰및 사료집』 예니, 1989.
김병국, 「문학적 관습에서 본 〈춘향전〉의 인물고」, 『고전문학연구』 별집 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5(한국고소설연구회 편,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아세아문화사, 1991, 234-269쪽에 재수록).
김현룡, 「古小說의 '房子' 素材」,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76-180쪽.
김흥규, 「房子와 말뚝이 : 두 典型의 比較」,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885-895쪽.
김흥규,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의 世界像」, 『민족문화연구』 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1-18쪽.
박영규, 『조선관청기행』, 김영사, 2018.
박영철, 「房子의 民衆意識과 限界 : 烈女春香守節歌 裵裨將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15,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134-157쪽.
박종섭, 「「春香傳」 房子의 性格 硏究 : 「烈女春香守節歌」를 中心으로」, 계명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122쪽.
서상희, 「「까치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5쪽.
송미경, 「사령형(使令型)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309-350쪽.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25-49쪽.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유영대, 「〈심청전〉의 여성 형상 : 곽씨부인과 뺑덕어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03-122쪽.
임성래, 「〈까치전〉 연구」, 『어학연구』 2,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990, 1-16쪽.
장덕순, 「作中人物을 통하여 본 〈春香傳〉」,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일지사, 1973.
정제호, 「서사무가에 나타난 차사형 인물의 콘텐츠 활용 양상과 스토리텔링 전략」,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2017, 409-437쪽.
정출헌,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 이고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89-127쪽.
정하영, 「沈淸傳에 나타난 惡人像 : 뺑덕어미論」,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5-29쪽.
정한숙, 「性格의 類型-房子를 中心으로」, 『韓國文學의 周邊』,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하경숙, 「여성 악인(惡人)의 형상화와 특질 — 뺑덕어미 인물형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47-73쪽.
허춘, 「古小說의 人物 硏究 : 仲裁者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148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3. 8. 1. 접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023. 8. 1. 접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고전소설 캐릭터 사전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07-HZ-3001, 2023. 8. 1. 접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DB, https://gubi.aks.ac.kr/web, 2023. 8. 2. 접속.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1일 투고되어 12월 11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21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The Presence of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in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the Painted Characteristics

Song, Mi-kyoung (Korea Aerospace University)

In the field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it is possible to find auxiliary or surrounding characters who have reached the level of typicalization based on their outstanding concreteness and sense of reality. Bang-shaped figures, hit-dog beauty figures, and command-type figur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and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belongs to this kind of personality type.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冊房)' is a position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official control (官制), and is privately filled by a village official. There are also documents recorded under the names of Chaekgaek(冊客) and Chaeksil(冊室). During the Joseon Dynasty, Ajeon was divided into "Kyung-ahjeon,"a lower-level official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Oe-aJeon,"a lower-level official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with Oe-ahjeon further divided into 'Hyangri (鄕吏)' and 'Gari (假吏). He was asked to cover for those who had served as former positions for generations for the province, and those who came from other provinces temporarily held former positions. However, Gari, who came in as a local officer and served as a kind of secretary while working on documents and accounting, was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A character reaches its epitome in the social relationship of a specific era. The special social relationship that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was "a being in a subtle position as a private staff of the leader without having a government organizational position in the public space of Dongheon" is the background for discussing the model of a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which encompasses Moknangcheong, Cho Nangcheong, and Lee Nangcheong. Since the character of a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is inextricably related to the leader, the shape in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also varies as per the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leader. Accordingly, it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which are as follows. First, he is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character who is completely subordinated to the leader in adherence to a thorough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his actions and actions arising from his subordination become the subject of ridicule and satire in the work. Second, although in a top-down relationship, he is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who forms a public relationship in relation to bribery, and he is the subject of criticism in the work, with the leader painted as a corrupt official. Third, although he is basically in a top-down relationship, it is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character that is less subordinate than the first type, and also contributes to making the leader an object of caricature or criticism in the work. Fourth, he, as the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is embodying his own personality, regardless of the leader's existence.

Keywords: Magistrate's Private Secretary, Magistrate's Private Counselor, Chunhyangjeon, Magpiejeon, Jangyeon Puppet Play, Moknangcheong, Gujin, Park Munsoo